90. 샤우워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눈이 녹는다면 내일쯤에는 십자가 위에 걸리겠지. 여기는 공동묘지의

정면이야."

"그러면 저기가 공동 묘지란 말인가?"

"물론이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나? 전에도 한번 이곳에 주둔한 적이 있어.

10월말의 마지막 공격 때였지."

샤우워는 식기에 손을 뻗쳤다.

"식사 운반차가 왔다! 빨리 해. 그렇지 않으면 썩은 국물밖에 오지 않을 테니까."

팔은 차츰 길어졌다. 눈이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이 서서히 지면에서 솟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위협을 하고 있거나 구원을 청하는 손짓으로 보였다.

중대장은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솟아 있는 건 무엇이냐?"

"소련군입니다. 중위님."

라에 중위는 색이 바랜 소매 끝을 주시했다.

"저건 소련군이 아니다."

뮤케 특무상사는 장화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는 중대장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그는 부동자세로 중대장 앞에 서 있었다. 군대의 규율은 일체의 개인적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러나 속으로는 중위를 멸시하고 있었으므로 발가락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미련한 녀석 같으니! 보기 흉하다고? 꼭 시체를

처음 보는 놈 같군.

"저것은 독일군이다."

"사흘 동안 소련군의 시체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부하들을 시켜 즉시 파내도록 해. 그러면 알게 될 테니까."

라에는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교만하고 멍청한 놈. 따뜻한 난로 옆에서 졸고 있다가 철십자 최고 훈장이나

자랑하겠다는 거야? 나도 네놈만큼 공은 세웠지만 그 따위 훈장 같은 것은 거저 줘도

안 받겠다."

"샤우워!" 그는 부르짖었다.

"임메르만, 이리로 와! 삽을 들고 오란 말야. 또 누가 있지? 그레버! 힐슈만!

베르닝! 슈타인브레너! 너는 이 작업을 감독해. 저기 보이는 손이다. 그것을 파내서

아군이면 잘 매장하는 거야. 내기를 해도 좋아. 저것은 절대로 아군이 아니다.!"

슈타인브레너가 다가왔다.

그는 어린애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얼마야?"

뮤케는 잠시 동안 망설였다. "3 마르크. 군표 석 장이다."

"다섯. 나는 5 마르크 이하로 내기한 적은 없어."

"좋아. 5 마르크다. 그렇지만 꼭 지불해야 돼."

슈타인브레너는 웃었다. 창백한 얼굴에 금발이 빛나고 있었다.

나이는 열아홉살로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야 물론. 뮤케, 또 다른

조건은?"

뮤케는 슈타인브레너를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열성당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뮤케는 담배를 꺼내들었다.

"됐어. 담배는?"

"좋지."

"총통께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슈타인브레너!" 임메르만이 빈정댔다.

"닥쳐!"

"너야말로 얌전히 계시지."

"기분이 몹시 상쾌한 모양이군."

임메르만은 웃었다.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나. 네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어.

나는 총통께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했어. 여기 증인이 네

사람이나 있어. 총통께서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만들 해!" 뮤케가 소리쳤다.

"빨리들 파내. 중대장의 명령이다."

"좋아, 가자." 슈타인브레너는 뮤케가 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도대체 언제부터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 임메르만이

빈정거렸다.

"지금은 근무중이 아냐." 뮤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자.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시체를 파내. 힐슈만, 너도 해!"

힐슈만이 다가왔다. 슈타인브레너는 히죽히죽 웃었다.

"너에게는 안성마춤의 일이지. 너희들 유대인의 피를 더욱 빛나게 해줄 테니까."

"나는 4분의 3이 아리안이야." 힐슈만이 반박했다.

슈타인브레너는 담배연기를 그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너의 4분의 1은 유대인이야. 총통의 자비로 너는

영광스럽게도 독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의

돼지들을 빨리 파내. 저 돼지놈들은 어찌나 냄새가 지독한지 중위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으시다고."

"이건 소련군이 아냐."

그레버가 말했다. 그는 혼자서 송판조각으로 시체의 팔이나 가슴께의 눈을 파내고

있었던 것이다. 축축한 군복이 뚜렷하게 보였다.

"소련군이 아니라고?" 슈타인브레너는 그레버에게로 가까이 와서 내려다봤다.

"과연 독일군의 복장이군." 그는 얼굴을 돌렸다. "뮤케! 소련군이 아냐. 내가

이겼어!"

뮤케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구덩이를

들여다보았다.

"잘 모르겠는데."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일주일 동안 소련군의 시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것은 12월에 파묻힌

녀석일 거야."

"어쩌면 10월일는지도 몰라." 하고 그레버가 말했다.

"그때 우리 지대가 이곳을 통과했었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 마라. 그 당시의 시체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 있는가."

"있지. 우리는 여기서 소련군과 야간전투를 했었고, 적들은 후퇴했었지."

"맞아." 샤우워가 말했다.

"우리 편의 시체는 발견하는 즉시 전부 매장했어. 그것은 분명해."

"분명하긴 무엇이 분명하단 말야! 10월에 많은 눈이 내렸고 우리는 그대로 전진하고

있었어."

"너는 그 말을 두 번이나 했어." 슈타인브레너는 그레버를 노려 보았다.

"다시 한번 들려주지. 그때 우리는 반격을 개시하여100 킬로미터 이상이나 전진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후퇴하고 있단 말이지?"

임메르만은 경고하는 것처럼 그레버를 손끝으로 쿡 찔렀다.

"그러면,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는 말인가?"그레버는 개의치 않고 반문했다.

"전선을 단축하고 있는 거야." 임메르만은 중간에 나서서 비웃는 듯한 눈초리로

슈타인브레너를 노려 보았다.

"이미 일년이나 지났어. 작전상의 필요 때문이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힐슈만이 말했다.

뮤케는 허리를 숙였다.

"금반지다. 결혼반지야."

모두들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틈을 타 임메르만은 그레버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조심해. 저놈은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거든."

"너야말로 조심해. 저놈은 나보다 너를 더 감시하고 있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특별휴가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들 연대의 배지다!"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힐슈만이 소리쳤다.

"그렇다면 소련군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군. 그렇지?" 슈타인브레너는

뮤케를 돌아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그래. 소련인이 아냐."

뮤케는 성난 듯이 대답하였다.

"5 마르크. 10 마르크쯤 걸 것을 잘못했는데. 자, 얼른 내놓게."

"지금 여기 없어."

"그럼 어디 있단 말인가? 국립은행에라도 맡겨두고 있단 말인가? 빨리 내놓으란 말야!"